

충장축제 앞두고 광주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기승

30~300%까지 객실요금 고공상승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 취소까지
‘자율요금표시제’ 탓 단속도 못해
동구 “업소 상대로 대대적인 계도”

광주의 대표 축제로 불리는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거나 가격 인상을 하면서 공정상거래 논란 및 지역 이미지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구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대대적 계도에 나선다.

1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충장축제에 맞춰 예약했던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럽게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해당 숙박업소는 ‘가격 오책정’을 이유로 예약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약 취소 통보는 A씨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광객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숙박업소는 일방적으로 고객들에게 취소통보를 보낸 뒤 가격을 두 배가량 인상해 놓은 상태다. 기존에 하루 4만 3000원이었던 숙박 요금을 현재는 8만원 수준으로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지난해 9월 5일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인기가수 코요태가 무대 위에 올라 공연을 펼치고 있다. 정성아 기자

다.

A씨는 “서울에서 충장축제를 보러 가기 위해 한달 전부터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 오책정의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다시 숙박업소 검색을 해보니 가격이 두 배가량 올라있는 것을 보고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들이 이때다 싶어 가격담합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충장축제가 열리는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의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숙박업소 중개 앱을 살펴보니 평일 1박 기준 3만원 초반대로 예약 가능했던 숙박업소들이 충장축제 기간에 맞춰 적게는 5만원까지 올랐고, 심지어 요금이 300%가 치솟은 10만원 수준까지 오른 곳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숙박비 바가지’는 단속이 어렵다. 법적으로 숙박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제재가 가능하지만, 자율요금 표시제에 따라 당초에 가격을 높게 게시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축제를 주관하는 동구가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지난해 목포시는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한숙박업중앙회 목포시지부와 사전 예약 및 바가지요금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에 동구도 축제까지 남은기간 동안 바가지 요금을 막는 데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동구는 오는 23일부터 명예감시원을 파견해 충장로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들을 점검하고 갑작스럽게 가격을 인상한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명예감시원은 광주시에서 공공 이용업소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 교육을 수료한 인원들로 구성됐으며 일일이 숙박업소들을 돌며 계도할 예정이다.

또 충장로 숙박업소 밀집구역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수막들을 내걸고 충장축제 전까지 숙박업소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승일 충장로 상인회장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아 느끼는 바가지 요금에는 먹거리, 볼거리에 드는 비용도 있겠지만 숙박요금도 그에 포함되는 부분이다”면서 “충장축제는 충장로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축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가을의 서막… 22일까지 광주·전남 30~80mm 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19일 오후부터 비가 내린 뒤 가을 늦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14호 태풍 ‘폴라산’에서 유입되는 열대 수증기 영향으로 이날 밤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점차 확대돼 22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로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늦더위가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는 오는 22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30~80mm가량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지리산과 전남 남해안 등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됐다.

특히 20일 새벽부터 21일 새벽 사이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30~50mm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광주와 전남 내륙에도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

mm 내외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이번 비로 인해 가을 늦더위도 한풀 꺾여 20일 낮 최고기온은 28~32도, 21일 낮 최고기온은 27~30도로 예측되며 유지되고 있던 폭염특보도 19일 모두 해제됐다. 비가 그친 다음 주에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16~23도로 떨어져 낮 기온(26~29도)과 10도 내외의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폭염이 평년보다 길어진 이유로 서쪽에 자리한 티베트 고기압이 북쪽의 한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고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 열대저기압과 강한 일사와 수증기 유입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됐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번 주말부터는 티베트 고기압이 점차 약화해 찬 공기가 남하할 수 있는 대기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 기자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에 차량털이범 붙잡혀

대중교통 이용·환복하며 추적 피해 100여개의 CCTV 분석 끝에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의 눈썰미에 털미를 잡혔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 침입해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사경이 접하지 않은 차량에 접근해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열어보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차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장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새벽 시간대에 찍힌 탓에 화면이 어두워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더군다나 마땅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A씨의 발자취를 따라 추적에 나섰지만, 검거가 쉽지 않았다.

A씨가 도보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 서구와 광산구 일대를 복잡하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쫓는 경찰을 피해 다녔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주 중에 수시로 옷을 갈아입으며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피하기도 했다.

확인한 방법용, 사실 CCTV 개수가 100개를 넘어갈 때쯤 순간 형사의 눈이 번뜩었다.

서구 한 식당에서 확보한 CCTV 영상

속 A씨의 인상착의가 2년 전 자신이 절도 혐의로 붙잡았던 인물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조사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수사망을 좁혀간 경찰은 지난 12일 광주 북구 누문동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털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재차 차량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광주교대,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 5.53대 1 ‘대폭 상승’

2025학년도 광주교육대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21명 모집에 1223명이 지원해 5.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09대 1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교직적성우수자전형으로 40명 모집에 500명이 지원해 12.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교육감추천전형 1.70대 1(모집 60명 지원 102명), 농어촌학생전형 4.70대 1(모집 10명 지원 47명)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

지만 나머지 모든 전형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상승 폭이 가장 큰 전형은 사회통합전형으로 10.0대 1(모집 7명 지원 70명)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에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지원아동대상자 등 만 30세 이상 만학도를 추가해 초등교사를 꿈꾸는 늦각이 수험생의 관심을 끌어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교대는 1단계 합격자를 오는 11월 8일 발표한다. 1단계 합격자 면접은 11월 23일 진행한다.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는 12월13일 광주교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김은지 기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5년 만에 재심 확정

법원, 청구 2년 만에 재심키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아버지 A(74)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부녀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순천의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A씨의 아내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주된 2명이 사망하고 2명

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A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A씨 부녀는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이어졌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백씨 부녀를 석방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민현기 기자